도로변 골칫거리 덩굴 제거 팔 걷어붙였다

서귀포시, 약제 살포·덩굴 걷기 등 물리·화학적 방제 병행
제주시도 덩굴류 제거 작업… 예산 추가 확보해 사업 확대

서귀포시가 도로변 골칫거리인 덩굴류 제거에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칡덩굴의 급속 확산으로 인한 수목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로경관 조성을 위해 주요 도로변 덩굴 제거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고온다습한 기후로 덩굴류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도로변 수목의 생육을 저해하고 주요 도로의 경관을 훼손하고 있어 지속적·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지난해 사업비 3억6900만원을 투입해 서성로·번영로·산록도로·평화로·중산간도로 등 주요 도로변 126ha를 대상으로 약제 살포 위주의 화학적 방제를 실시했다.

이어 올해는 사업비 4억8200만원을 들여 사업 면적을 184ha로 확대하고, 화학적 방제뿐만 아니라 주두부 제거와 덩굴 걷기 등 물리적 방제를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방제사업으로 평화로·중산간도로·한창로 등에서 덩굴에 가려졌던 수목과 도로 사면이 드러나고 수목의 생육공간과 주변 시야가 확보되는 등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사업구간의 비교 사진을 통해 덩굴 제거에 따른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올해도 주요 도로변 덩굴 제거와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폭염 속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안전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자체사업으로 올해 본예산 1억5000만원을 투입해 연북로와 애조로를 중심으로 30ha에 대한 덩굴류 제거 작업에 나서고 있다. 이어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관련 예산 4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 사업을 확대한다. 한림읍에서도 자체적으로 4000만원을 받아 주요 도로변 덩굴류 제거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본예산과 추경 등을 통해 3억8000만원을 투입해 110ha에 대한 덩굴류 제거 작업을 벌였다"며 "올해는 연북로에 대한 사업을 마쳤고 애조로에 대해서는 2차 작업을 추진 중으로 9월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평화로와 번영로 등 중점 관리구역에 대해서는 제주도 차원에서 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며, 읍면에서도 자체 관리에 나서고 있다는 입장이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서귀포시는 쾌적한 도로경관 조성을 위해 주요 도로변 덩굴 제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귀포시 제공

제주대 미사용 물품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AI 활용 '이음' 시범 오픈… 9월부터 본격 서비스

제주대학교 디지털정보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학내 미사용 물품 정보 공유 플랫폼인 '이음(ieum)'을 10일 시범 오픈했다.

이번 플랫폼 구축은 지난 6월 열린 단과대학별 총장과의 대화에서 제기된 건의 사항에서 시작됐다. 부서 내 재사용 가능한 물품이 있어도 학내에 필요한 곳을 알 방법이 없다는 거였다. 이에 제주대 재정과와 AI디지털정보과가 협업해 '바이브 코딩'을 활용한 자체 플랫폼 구축으로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음' 플랫폼은 데스크톱만이 아니라 모바일 환경도 지원해 물품 담당자가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즉시 등록할 수 있다. 특히 멀티모달 생성형 AI 기술을 적용해 물품관리표 사진 한 장으로 자산번호, 품명, 규격명, 취득 일자, 취득 가액 등을 자동 입력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제주대는 '이음'을 통해 학내 자산의 수요처를 신속히 연결해 재사용을 활성화하고 중복 구매를 예방함으로써 대학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정원 디지털정보처 처장은 "단순한 물품 거래 장터가 아니라 대학 내 자원을 효율적으로 공유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8월 시범 운영을 통해 기능을 보완한 뒤 9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서귀포시 동지역에 '수(水)호천사팀' 뜬다

동지역 급수가구 누수 해결… 복지사각지대 발굴도

서귀포시는 이달부터 주민소통 행정 실천을 위해 동지역 급수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행정 서비스 '우리동네 수(水)호천사'를 본격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민선 9기 출범 100일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검침원 등 상하수도과 직원 24명으로 구성된 '수호천사팀'이 현장을 직접 찾아 수용가의 생활 여건을 살피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생활밀착형 행정 실천을 위해 추진된다. 이에 수호천사팀은 월 4회 현장을 방문해 상하수도 민원·요금 상담(12월까지 160가구 이상)을 비롯해 취약계층 옥내 누수 무료탐사 지원(월 10가구) 및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해 복지부서에 알려주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아울러 시는 여름철 가뭄 시 안정적인 급수를 위해 지역별 급수가능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비상급수대책반을 항시 운영하고, 비상시 지역 내 소방서와 협력해 신속하게 급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백금탁기자

서귀포항, 7000t급 화물선 접안 가능해진다

483억원 투입해 확충 공사
오는 2030년 4월 준공 목표

서귀포항의 대형 화물선 수송과 안전한 입·출항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 부두를 대폭 확충하는 공사가 진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남부지역의 물류·여객 수송체계를 구축하고 선박 대형화에 대응하기 위해 '서귀포항 재정비 공사'를 착공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총사업비 483억원이 투입됐으며 오는 2030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기존 3000t급 잡화부두를 7000t급으로 확충해 대형 화물선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기존 5000t급 여객부두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정비한다.

7000t급 화물선이 안전하게 선회할 수 있도록 직경 235m 규모의 선회장을 확보하고, 접안시설 배후에는 약 3만1000㎡ 부지를 확보해 물류 및 여객 편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종수 해양수산국장은 "서귀포항 재정비 공사가 준공되면 무역항으로서의 접안능력이 향상되고 안전한 입·출항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침체된 제주 건설경기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서귀포시 중앙공영주차빌딩 엘리베이터 신설 추진

서귀포시는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인근의 중앙공영주차빌딩을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주차빌딩 내 엘리베이터를 신설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용객의 개선 요구에 따라 중앙공영주차빌딩에 15인승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엘리베이터는 1층부터 3층(옥상층)까지 운행하며, 올해 하반기부터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백금탁기자

도, 위기업종 소상공인 300억 규모 특별보증

제주 지역 위기업종 소상공인을 위한 3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제주신용보증재단 대회의실에서 (주)카카오뱅크, 제주신용보증재단과 '제주형 위기업종 소상공인 특별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제주형 위기업종'으로 선정된 도내 소상공인 가운데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 업체다. 업체당 3000만원 이내에서 보증하며 상환은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다. 이번에 선정된 제주형 위기업종은 신용점수가 10점 이상 떨어졌거나 매출액이 5% 이상 줄어든 업종, 제2금융권 대출잔액이 5% 이상 늘어난 업종 등이 대상이다.

소매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숙박업, 교육 서비스업 등 24개 업종이 포함됐으며 농·어업 등 1차산업과 건설업 특별보증 대상 업종은 제외됐다. 선정 효력은 2년간 유지된다.

오소범기자